2030대 10명 중 8명, 국민연금 '불신'

한국여성정책연, 지난해 국민연금 두고 설문조사
최소 희망 월 노후소득, 남성 266만·여성 241만원

2030대 10명 중 8명 가까이는 국민연금을 불신한다는 국책연구기관 조사 결과가 나왔다. 기금 고갈로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고 인구 감소로 보험료가 오를 것이란 우려도 컸다.

14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지난해 발간한 '미래사회 성평등 정책의 도전과제(Ⅱ): 초고령·4차 혁명 사회의 여성 노후소득 보장'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의 '2030의 노후소득보장 인식과 지원수요' 설문조사가 실렸다.

지난해 7~8월 만 20~39세 남성 600명과 여성 552명 등 총 1152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을 벌인 결과 응답자의 75.6%는 국민연금제도를 불신한다고 답했다.

연령대별로 만 35~39세 79.7%를 비롯해 만 30~34세(77.9%), 만 25~29세(75.8%), 만 20~24세(67.8%) 등 나이가 들수록 제도를 믿지 않는다는 이가 많아졌다.

30대 여성의 경우 불신한다는 답변이 80.2%에 달했다.

제도에 대한 우려 5가지에 대해 인식을 조사한 결과, '인구감소(저출산·고령화) 현상으로 내가 내야 하는 보험료가 계속 인상될 것 같아서'가 89.3%로 1위였다.

이어 '노후에 받게 될 금액이 너무 적을 것 같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가 86.3%였으며, '기금 고갈로 인해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지 못할까 우려한다'가 82.6%였다.

전체 응답자 73.3%는 '국민연금 개혁에 청년세대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다'고 답했으며 국민연금 기금운용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도 62.4%가 동의했다.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월 수입에 대해 묻자 평균 254만7000원으로 조사됐다. 남성은 평균 266만5000원, 여성은 241만8000원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국민연금 이외 별도의 노후 소득 준비 여부를 묻자, 과반수 응답자인 56.8%가 그렇지 않다고 했다.

별도의 노후 소득을 준비하지 않는다고 답한 654명에게 다시 그 이유를 물었는데 '아직 생각해보지 않음'이 43.0%로 조사돼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

'소득이 적어서'(25.2%), '과도한 주거비 지출 때문'(9.4%), '고용상태가 불안정'(7.4%) 등이 뒤이었다.

특히 20·30대 남성과 20대 여성이 '아직 생각해보지 않았음'을 1순위로 꼽은 것과는 달리, 30대 여성만 '소득이 적어서'를 1순위로 택했다.

노후소득을 준비 중이라고 한 498명에게 복수응답을 허용하고 방식을 묻자 62.7%는 '예금·적금'을 꼽았고 '개인연금 가입'(56.4%),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52.2%), '퇴직연금을 받을 것'(36.9%) 등 순이었다.

남성은 주식·채권·펀드·가상화폐 투자가 63.3%로 상대적으로 많았고 여성은 예금·적금이 68.3%로 1위였다.

부모 세대보다 더 나은 경제적·사회적 환경에서 살 수 없다고 답변한 비율은 전체 1152명 중 71.7%였다. 여성(74.7%)이 남성(69.0%)보다 비관적으로 전망했다.

개인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정부의 지원 정도에 대해선 가장 많은 응답자 41.6%가 '모든 노인에게 최소한의 노후소득을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금보험료와 급여액 조정 방향은 '보험료는 덜 내고 급여액은 더 많이 받는다'가 31.4%로 가장 많았지만, 그 다음은 '더 내고 더 받는다'(26.6%)가 선호됐다.

연구진은 "노후소득 준비의 측면에서 가장 불리할 수 있는 집단에게 적정한 수준의 노후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연금개혁의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김희면 기자

4월 중순에 벌써 모기…"온난화로 활동 시기 빨라져"

4월 중순임에도 모기에 밤잠 설쳐

"지난 화요일에 자다가 귀에서 앵앵거리는 모깃소리에 깜짝 놀라 깼어요. 작년 11월까지도 모기가 있었는데, 이 작은 것들의 비수기는 왜 이리 짧은 건가요."

경기 평택시에 사는 박모(32)씨는 최근 모기 퇴치제를 샀다고 한다. 특히 지난해 11월까지도 밤마다 모기와의 전쟁을 벌였다며 "4월인데도 벌써 모기랑 싸우고 있다는 게 어이없다. 겨울만 빼고 모든 계절에 모기가 활동하는 것 같아 짜증이 난다"고 말했다.

14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봄이 한창인 4월에 벌써 모기가 나타나 시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하고 있다. 보통 5월 말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던 모기가 3월 말~4월 초부터도 모습을 드러낸 셈인데,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 시기가 앞당겨진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관내 디지털 모기 측정기(DMS) 51개소를 통해 채집한 모기 수는 지난주(1~6일) 기준 총 1058마리다. 구체적으로 ▲1일 150마리 ▲2일 122마리 ▲3일 220마리 ▲4일 237마리 ▲5일 172마리 ▲6일 157마리다.

앞서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5월1일에 모기 채집을 시작했는데, 지난해에는 4월15일부터, 올해는 4월1일부터 채집이 시작됐다. 보통 5월께부터 모습을 드러내곤 하던 모기의 활동 시기가 5년 사이 한 달이나 빨라진 셈이다.

질병관리청은 지난달 29일 전남과 제주도에서 올해 처음 일본뇌염을 매개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확인되자 지난달 30일 전국에 일본뇌염 주의보를 발령하기도 했다.

이처럼 모기의 활동 시기가 점차 앞당겨지면서 시민들은 모기와의 사투를 빠르게 준비하고 있었다.

경기 의왕시에 사는 이모(27)씨는 최근 모기 퇴치제와 물티슈를 구매해 침대 옆에 뒀다고 한다. 모기가 나타났을 때 빠르게 퇴치제를 뿌리고, 만일 손으로 잡았을 경우 물티슈로 손을 닦기 위해서다.

이씨는 "4월인데도 벌써 모기가 나타났다는 게 너무 짜증 난다"며 "이번 봄부터 여름, 가을까지 모기와의 전쟁에서 꼭 승리할 거다"고 말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손모(30)씨도 "집 근처에 산이 있어 모기가 많이 들어오곤 했는데, 최근에 방충망 등 모기가 들어올 수 있는 구멍을 최대한 손보고 있다"며 "올해 목표는 모기에 20번 미만으로 물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낮 평균기온이 13도 이상으로 올라가야 본격 활동에 들어가는 모기가 올해 들어 빠르게 나타난 이유는 포근한 날씨가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낮 최고기온이 19~26도를 오르내리는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초여름 날씨를 보였다. 주요 지역 낮 최고기온은 서울 24도, 인천 21도, 수원 24도, 춘천 26도, 강릉 24도, 청주 25도, 대전 25도, 전주 24도, 광주 25도, 대구 25도, 부산 20도, 제주 21도였다.

아울러 당분간 기온은 평년(최저기온 3~9도, 최고기온 15~19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질 거라고 기상청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 등의 영향으로 기온 상승 시기가 빨라지면서 모기 번식 활동도 활발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최저기온도 점차 높아져 모기와 해충 등의 피해도 점차 커질 수도 있다고 했다.

윤순진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고 있는데, 이건 단순히 여름에만 더워진다는 것이 아니다"며 "전체 계절의 기온이 점차 높아져 모기의 번식 시기가 빨라지고 있는 것이고, 최저기온도 크게 떨어지지 않으면서 모기 활동 시기도 길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이처럼 지구온난화가 계속된다면 겨울에도 모기들이 살아남아 토착화할 가능성이 있고, 모기만이 아닌 다른 해충 피해도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이슬비 기자

'희대의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징역 35년 확정

추징금 917억원…벌금 3000만원

회사 자금 수천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팀장이 징역 35년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4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확정된 추징금도 917억원에 달한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약 1년간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증권 계좌로 15회에 걸쳐 총 2215억원을 이체, 이를 주식 투자 등 개인 용도로 임의 사용해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1심은 징역 35년과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약 1151억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형량은 유지하고, "피해회복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하고 민사조정이 이뤄졌다"며 추징금을 약 917억원으로 변경했다.

이씨의 아내, 여동생, 처제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추가 기소돼 이씨와 함께 재판을 받았다. 이들은 2심에서 각 징역 3년, 징역 1년6개월,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상고하지 않아 지난 1월 형이 확정됐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씨 아버지 주거지 등에서 1kg 금괴 254개를 확보하기도 했다. 이씨는 아내와 처제 명의로 약 75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뉴시스

고흥경찰, 점암초등학교 학생들과 경찰체험활동 전개

고흥경찰서(서장 허양선)에서는 지난 11일 점암초 3 4학년 학생 5명 대상으로 경찰서 견학 및 경찰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였다.

고흥=기동취재본부

보성경찰, 경목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간담회 개최

보성경찰서(서장 양백승)는 지난 9일 보성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24년 경목회 신규위원 위촉식 및 정기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보성=김덕순 기자

나주경찰, 교육청 합동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나주경찰서(서장 장진영)는 지난 11일 빛가람초등학교 정문 앞에서 경찰서등 총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학기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을 펼쳤다.

나주=송준표 기자

구례소방,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간이 스프링클러 설치

구례소방서(서장 박상진)는 산림 인접 지역의 화목보일러 사용 주택에 간이스프링클러 및 자동확산소화기를 설치하여 산림화재발생을 예방하고, 군민의 안전 및 화재 피해 최소화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구례=박진호 기자

담양소방, 일상 생활 속 '부주의 화재 예방' 캠페인

담양소방서(서장 윤예심)는 지난 5일부터 6일 양일간에 걸쳐 고비산 산벚꽃 축제장을 찾아 관광객을 대상으로 봄철 부주의 화재예방 안내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 기자

광주 남부소방,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대책 추진 및 현장방문

광주 남부소방서(서장 김종률)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31일까지 봄철 공사장 화재예방대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서선옥 기자